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미 현**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경기 지역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420명(남학생 192명, 여학생 228명)이었다. 변인의 일반적 경향의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첫째,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 우울에 있어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또래애착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학생 모두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셋째, 남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지향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의 32.5%를 설명하였다. 넷째, 여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 부모애착, 사회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의 43%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자기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높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우울이 감소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또래애착, 부모애착,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우울이 감소했다.

주제어 :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 이 논문은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 jehee77@hanmail.net

I. 서 론

우울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로(김교현, 2004),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이뤄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중1~고3 학생 중 평균 37.5%가 우울감을 경험하였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유발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김명식, 2009), 27.2%의 학생들이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들어 점차 증가하는 우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적으로 야기되는 부담이 세 번째로 큰 정신질환으로 보고하였으며 2030년에는 가장 큰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우울을 방치한다면 성인기에도 우울이 지속되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심리적 문제인 우울이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되면서 겪는 발달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따라 외모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열등감이 생겨 낮은 자아상이 형성되기 쉽다. 또한 인지적 변화에 따른 추상적, 논리적 사고로 인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성찰로 이어져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자기비판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고 또래 및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와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오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의 발달 과정 상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아동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 사이에 우울이 증가하게 된다(Cole et al., 2002). 또한 청소년기 우울은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높고(권석만, 2000) 이런 경향은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Weissman et al., 1996).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기분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짜증, 신경질을 잘 내고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성적이 저하되며 반항적인 모습이 심해져 교사, 부모와 마찰을 일으키고 자살,

비행, 음주 등 여러 심리적, 행동적 적응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Flett, Hewitt & Dyck, 1989;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Rice, Ashby & Slaney, 1998). 그런데 청소년기 우울증상을 단지 사춘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간주하고 넘어간다면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우울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성에 따라 우울증 유형이 다르므로 어떠한 요인들이 청소년을 우울하게 만드는지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치열한 입시 경쟁과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중, 고등학교 시기는 성취와 완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학업열이 높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나라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더 많은 학업적 성취에 대한 압력과 부담이 생기기에 이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때 성취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면서 비현실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실패나 무가치함으로 해석하는 경우 완벽주의는 우울을 증가시킨다(Hewitt & Flett, 199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로부터 기대 받는 성취 기준이 높고 이를 달성하도록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통제, 간섭하면서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부모가 기대한 성취 기준에 못 미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비판과 자기 비판이 생겨 무기력감, 우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Rice, Leever, Noggle & Lapsley, 2007). 이러한 부모나 주위로부터 기대 받는 완벽주의는 중요한 부적응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Rice et al., 1998).

그러나 완벽주의가 모두 부적응적인 것은 아니며 과제와 성취를 위한 높은 개인적 기대나 기준, 질서와 조직화에 대한 선호(Rice et al., 1998)와 같이 적응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는 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 긍정적 정서 및 학업적 성취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Chang, Watkins & Banks, 2004). 이처럼 완벽주의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하위차원에 따라 우울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뤄진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데 청소년기는 성취와 완벽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하위차원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윤숙경,

1996; 조영미, 2003; 최정임, 1998) 성에 따라 완벽주의 하위차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울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인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며 많은 연구가 부모·또래애착을 우울의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옥정, 1998; 이정수, 2006; 최인숙, 2012; Armsden & Greenberg, 1987; 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로 정의된다(Bowlby, 1973).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갖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애착관계의 질은 유아가 경험한 양육의 질에 달려있다(Bowlby, 1973). 이때 유아의 욕구에 대한 애착 대상의 정서적 반응성을 바탕으로 자신, 타인에 대한 최초의 기대와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내적 실행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은 인간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사건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실행모델, 즉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 부정적인 대인간 사건을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청년기나 성인기에 우울 증상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한다(Cummings & Cicchetti, 1990).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관계가 우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애착의 질이 안녕감과 강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우울을 예견한다고 하였다. Sund와 Wichstrom(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은 우울증상이 처음보다 3배 이상 증가되는 것과 연관되고 이때 애착의 하위 변인인 소외감은 우울한 인지적 도식 즉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존재감이 왜곡되고 거부되는데서 오는 도식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절감을 갖게 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감을 느끼는데 있어 왜곡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울한 인지적 도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 들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지며 갈등이 증가하는 반면(Steinberg, 1987) 또래와의 관계는 긴밀해지고 또래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Berndt, 1979). 이때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옥정, 1998; 이정수, 2006), 불안정한 또래애착은 더 높은 우울수

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Armsden et al., 1990)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 우울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낮고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는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또래애착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Armsden & Greenberg, 1987)가 있는 반면, 또래 애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옥정, 1998;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또한 청소년의 성에 따라 부모,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오송희, 1999; 옥정, 1998; Armsden & Greenberg, 1987).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애착을 함께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부모·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청소년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을 성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에 따라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성에 따라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남학생의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여학생의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3월 경기도에 소재하며 임의 선정한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총 420명으로 남학생 192명(45.7%), 여학생 228명(54.3%)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2학년 92명(21.9%), 3학년 328명(78.1%)이었다. 연구대상을 중학교 2, 3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청소년기에 들어서고 사춘기가 진전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등 여러 적응과제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조사 시기인 3월에 중학생이 되어 기존의 중학생과 인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우울

청소년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우울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의 아동용 수정판으로, Kovacs(1981)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8세에서 17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술문을 1개 골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울증상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점에서 2점까지 평정되고,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CDI가 BDI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척도라고 밝혔다(신민섭, 김민경, 1994; Curry & Craighead, 1990).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77 이었다.

2) 완벽주의

1991년에 Hewitt과 Flett이 제작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한기연(1993)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이미화(2001)가 수정한 MPS를 사용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 비판하는 것이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여 이를 완벽하게 해내도록 기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자신의 성취를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믿음으로 의미 있는 타인의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한다. 각 하위차원은 15개의 문

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이고 각 하위영역별 점수의 범위는 15~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하위 영역별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87,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70,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71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86이었다.

3) 부모·또래애착

본 연구에서는 부모·또래와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개발한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Version: IPPA-R)을 옥정 (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영역으로는 신뢰감(trust)에 관한 10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관한 9문항, 소외감(alienation)에 관한 6문항이다. 5점 평정척도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 영역 간에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총점을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는 .93 이었다.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영역으로는 신뢰감(trust)에 관한 10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관한 8문항, 소외감(alienation)에 관한 7문항이 있다. 5점 평정척도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 영역 간에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총점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하위 영역별로 신뢰감은 .85, 의사소통은 .90, 소외감은 .67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분포와 청소년의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과 우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에 성에 따른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세 가지 하위차원과 부모·또래애착 및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완벽주의 하위차원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평균점수($M=48.70$, $SD=8.8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지향 완벽주의($M=46.26$, $SD=46.26$), 타인지향 완벽주의($M=44.92$, $SD=44.92$) 순이었다. 애착은 또래애착의 평균점수($M=88.44$, $SD=88.44$)가 부모애착($M=87.79$, $SD=87.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평균점수($M=51.31$, $SD=9.3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지향 완벽주의($M=46.91$, $SD=6.86$), 타인지향 완벽주의($M=45.54$, $SD=6.69$) 순이었다. 애착은 또래애착의 평균점수($M=93.82$, $SD=14.72$)가 부모애착($M=85.96$, $SD=17.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은 남학생,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14.26점, 14.48점으로 Kovacs(1983)가 민감도와 특이도에 따라 제시한 우울증 기준점(cut-off)인 11~1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51.6%, 여학생의 59.2%가 13점 이상에 해당되었다.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또래애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자기지향 완벽주의($t=-2.89$, $p<.01$)와 또래애착($t=-3.69$, $p<.001$)에서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우울에서는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 우울에 대한 차이검증

측정변인	통계치		가능점수 범위	실제점수 범위	M	SD	t
	남	여					
완벽주의	자기지향	남	15~75	20~74	48.70	8.89	-2.89**
		여		24~74	51.31	9.30	
	타인지향	남	15~75	26~61	44.92	6.69	-.94
		여		29~68	45.54	6.69	
사회지향	남	15~75	32~64	46.26	6.49	-.96	
	여		32~67	46.91	6.86		
애착	부모	남	25~125	37~119	87.79	16.45	1.04
		여		38~123	85.96	17.91	
	또래	남	25~125	39~124	88.44	14.53	-3.69***
		여		52~125	93.82	14.72	
우울	남	0~54	1~43	14.26	7.50	-.31	
	여		1~41	14.48	6.22		

** $p < .01$, *** $p < .001$

2.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 및 우울 간 관계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부모애착,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관계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또래애착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완벽주의보다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관련성을 보였다.

표 2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

(N=411)

	여학생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지향	부모애착	또래애착	우울	
남 학 생	자기지향	1	.435**	.239**	.239**	.129	-.227**
	타인지향	.540**	1	.253**	.083	.104	-.177**
	사회지향	.277**	.230**	1	-.288**	-.142*	.285**
	부모애착	.036	.053	-.333**	1	.287**	-.512**
	또래애착	.279**	.184*	-.094	.203**	1	-.490**
	우울	-.276**	-.202**	.288**	-.352**	-.378**	1

* $p < .05$, ** $p < .01$

3. 남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변수를 하나씩 투입할 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커졌으며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 시 우울의 32.5%를 설명하였고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남학생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때 자기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우울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우울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지향 완벽주의($\beta = .293, p < .001$), 자기지향 완벽주의($\beta = .239, p < .01$), 부모애착($\beta = -.206, p < .01$), 또래애착($\beta = -.190, p < .01$) 순으로 나타났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남학생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남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15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완 벽 주 의	자기 지향	-.260 (.068)	-.292 (***)	-.222 (.079)	-.249 (**)	-.272 (.073)	-.306 (***)	-.256 (.071)	-.288 (***)	-.212 (.071)	-.239 (**)
	타인 지향			-.095 (.101)	-.083	-.137 (.093)	-.121	-.117 (.090)	-.103	-.111 (.089)	-.098
	사회 지향					.484 (.085)	.404 (***)	.383 (.089)	.320 (***)	.351 (.088)	.293 (***)
애 착	부모							-.052 (.016)	-.231 (**)	-.046 (.016)	-.206 (**)
	또래									-.104 (.039)	-.190 (**)
	R ²	.086		.091		.247		.293		.325	
	(수정된 R ²)	(.080)		(.079)		(.232)		(.275)		(.303)	
	F(p)	14.681(***)		7.772(**)		16.919(***)		15.969(***)		14.744(***)	

** $p < .01$, *** $p < .001$

4. 여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변수를 하나씩 투입할 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커졌으며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 시 우울의 43%를 설명하였고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여학생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때 타인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우울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우울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애착($\beta = -.344$, $p < .001$), 부모애착($\beta = -.297$, $p < .001$), 사회

지향 완벽주의($\beta=.218$, $p<.01$), 타인지향 완벽주의($\beta=-.141$, $p<.05$)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여학생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18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완 벽 주 의	자기	-.150	-.224	-.122	-.182	-.167	-.250	-.089	-.133	-.076	-.113
	지향	(.048)	(**)	(.053)	(*)	(.049)	(**)	(.048)		(.044)	
	타인			-.085	-.095	-.158	-.177	-.140	-.157	-.126	-.141
	지향			(.071)		(.066)	(*)	(.061)	(*)	(.056)	(*)
사 회 지 향					.372	.406	.228	.248	.200	.218	
					(.063)	(***)	(.064)	(***)	(.059)	(**)	
애 착	부모						-.067	-.383	-.052	-.297	
							(.012)	(***)	(.011)	(***)	
	또래								-.144	-.344	
									(.025)	(***)	
R^2	.050		.057		.206		.323		.430		
(수정된 R^2)	(.045)		(.047)		(.193)		(.308)		(.415)		
F(p)	9.845(**)		5,653(**)		16,004(***)		21,963(***)		27,653(***)		

* $p<.05$, ** $p<.01$, *** $p<.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4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에 따라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과 우울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에 따라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에 따라 독립변인들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우울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14.26점, 여학생 14.48점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현만과 한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평균 14.96점, 여학생 평균 16.55점이었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배주미(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평균 14.32점, 여학생 평균 14.35점이었다.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Smucker, Craighead, Craighead and Green(198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의 남학생 평균 9.65점, 여학생 평균 9.54점이었고 Chartier와 Lassen(1994)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남학생 평균 8.23점, 여학생 평균 10.36점으로 나타나 외국 학생보다 우리나라 학생의 우울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심한 입시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과도하게 느끼는 부담과 관련되어 보인다. 더하여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가 시간 및 다양한 여가 활동과 휴식 시설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풀기 어려운 환경과도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정마다 자녀 수가 평균 한두 명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이 커지면서 부모 자녀 간 갈등도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무력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기보고형 척도에 대한 한국 피험자들의 우울의 평균치가 외국에 비해 더 높은 경향성이 제시되고 있다(신민섭, 김중술, 박광배, 1993). 즉 실제로는 정상인데 우울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신민섭, 김민경, 1994) 번안된 외국 척도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에게 타당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신민섭, 김민경, 1994).

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완벽주의 세 가지 하위차원은 모두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고 이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윤숙경(1996), 조영미(2003), 최정임(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을 엄격히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부모애착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래애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오송희,

1999; 옥정, 1998;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이정수, 2006; Armsden & Greenberg, 1987; Raja, McGee & Stanton, 1992)와 상통한다. 이는 또래애착의 하위 영역이 친밀감, 소외감,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은 친밀하고 심도 있는 소수와의 관계를 선호하며 많은 대화를 통해 또래관계를 형성하나 남학생의 경우 폭 넓은 교우관계를 맺으며 활동 위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우울의 경우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여자의 우울이 남자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권석만, 2000; 신재은, 1998; Cole et al., 2002; Rutter, 1986)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김미아, 2007; 배주미, 2000; 이정수, 2006; 조혜진, 2006)에서는 남녀 간에 우울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부터 중학생의 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남녀의 차이보다는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여학생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난다고 여겨져 소홀해 질 수 있는 남학생의 우울증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

완벽주의 및 부모, 또래애착과 우울 간 상관관계는 남녀학생 모두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높고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낮으며, 부모·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스스로가 갖는 기대는 낮은 우울과 관련되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대는 높은 우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완벽주의와 우울 간 상관관계는 모두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가졌으나, 애착의 경우 우울과 좀 더 큰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부모애착($r=.512, p<.01$), 또래애착($r=.490, p<.01$)과 우울과의 관련성이 남학생의 부모애착($r=.352, p<.01$), 또래애착($r=.378, p<.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애착관계가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우울과 더 많은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더 관계지향적이며 대인간 유대 지향적이라는 맥락에서(Rose & Rudolph, 2006) 여학생에게 부모,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3. 남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지향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남학생의 경우 애착보다는 완벽주의가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관계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완벽에 대한 스스로의 혹은 주변으로부터의 요구와 이에 대한 무능감이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로부터 경쟁과 성취지향적인 분위기에 남학생이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남학생에게 완벽주의 영향이 여학생보다 큰 이유에 대해 사회학습이론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남자에게 더 많은 성취를 요구하는 사회화 과정 및 성역할 고정관념의 습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들에게는 독립적, 경쟁적, 목표 지향적이 될 것을 기대하고 딸에게는 애정적, 협조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에 적합한 행동을 강화시키고 자녀들은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동시에 자녀는 가족 내 동성 모델을 관찰하면서(Bandura, 1989) 아들은 아버지의 도구적 역할을, 딸은 어머니의 표현적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또래들끼리 성 정형화된 태도와 행동에 차별적인 강화를 주고 받으면서(Martin & Fabes, 2001) 성역할이 강화된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남성, 여성 캐릭터의 모습, 즉 남성은 목표와 성취를 추구해 나가는 인물로 여성은 정서적이고 친밀감을 추구하는 인물로 묘사된 모습을 보면서(Signorielli & Kahlenberg, 2001) 성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 개념이 청소년기가 되면 강화되어 남자는 더욱 남성적으로 보이려 하고, 여자는 더욱 여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Hale, Crouter & Tucker, 2001). 이렇게 습득된 성역할과 아울러 청소년기에 이르러 성취가 더욱 중요해지는 학교 환경에 처하면서 남학생은 성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정신분석이론으로 살펴보면, Freud(1923)는 오이디푸스 시기, 남자는 어머니를 사랑하여 아버지에 대한 살해 욕구가 발생하나, 힘이 센 아버지로부터 거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소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자는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주입하여 초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Anna Freud(1958)는 남근기에 나타났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청소년기에 재출현하는데 이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성공한 연예인 및 운동선수와 자신을 동일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로부터 남학생은 아버지나 다른 성공한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성취지향적인 남성 역할을 습득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학생에게 있어 중요해지는 완벽주의의 영향을 하위차원 별로 살펴보면,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남학생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로(이미화, 2001; Chang & Rand, 2000; Hewitt & Flett, 1991),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믿음은 스스로에게 완벽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고 더불어 타인이 부과한 기준이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Hewitt & Flett, 1991). 즉 스스로가 자율성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구해나감으로써 얻는 성취감과는 달리 타인으로부터 설정된 목표와 이에 대한 추구는 자율성을 방해함으로써 성취감 대신 우울감과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대인 간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통제의 부족 그리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아울러 부정적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울에 기여한다(Hewitt & Flett, 1991).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하게 되며 압력을 주게 됨으로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남학생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도식의 변화를 통해 우울이 감소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아들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좀 더 지지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 경우 우울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게 있어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자신의 행동을 평가, 반성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성취와 관련된 보람, 즐거움, 자부심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학생은 사춘기 자율성, 독립성의 욕구와

맞물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취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ewitt & Flett, 1993). 따라서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남학생의 우울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 대상이 성취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남학생은 성취 지향적이 되도록 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보다는 당연시 되며 오히려 목표를 추구해나가도록 동기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남학생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남학생의 우울을 감소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남학생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설정된 어떤 목표 및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 자신이 이뤄낸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는 남학생을 우울하게 하는 반면 타인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는 타인에게로 귀인 함으로써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해냈느냐의 여부가 남학생의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에서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보다 남학생의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중학교 시기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남학생의 경우 아직 또래보다는 부모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의 관계 특성에도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는 또래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활동과 목적 위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만큼 또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또래는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만큼 개인의 역량에 따라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부모의 경우 아직 자신보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지닌 존재로써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아직 부모에게 맞설 만큼 충분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중학교 시기에 남학생의 경우 또래의 영향보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독립심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증명되었으므로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꾸준히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감을 쌓아가

는 과정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의 경우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제외하고는 애착과 완벽주의 하위차원 중 남학생의 우울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차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는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남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4. 여학생의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의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완벽주의보다 크게 나타나 남학생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로부터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여학생을 더 우울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여학생의 표현적 역할 및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여 지는데 중요한 타인인 부모나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이때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부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학생의 경우 또래가 중요한 이유는 친밀한 또래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친밀한 또래가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자신감이 향상되고 정서적 지지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며 문제가 발생 시 또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부모보다 또래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학생의 우울을 다룰 때는 또래 관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완벽주의 경우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타인지향 완벽주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때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남학생과 공통된 결과로 일관되게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타인에 대

한 기대와 성취에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타인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갖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계에의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우울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촉진하거나 리더십 같은 바람직한 태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 (Hewitt & Flett, 1991) 본 연구 결과와 아울러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여학생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남학생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여학생의 우울에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에게 향하는 완벽에의 요구이고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완벽에의 요구로 여학생에게는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완벽에의 기대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요구와 기대가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로 부터 완벽주의 차원에서도 여학생에게는 관계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여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또래와의 애착관계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완벽에의 기대감과 실망감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4개 중학교를 편의표집 하였고 연구대상을 중학교 2, 3학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는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더 커질 수 있고 부모·또래애착 또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연령을 넓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완벽주의와 애착은 하위차원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변인 간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울에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동안 함께 고려되지 않았던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우울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사회지향 완벽주의는 유일하게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감소시키는 개입과 아울러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부모·또래애착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증가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주의와 부모·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이 성에 따라 다름을 밝힌 점이다. 남학생의 경우 사회지향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라는 완벽과 성취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우 또래애착과 부모애착이라는 관계변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우울을 다룰 때 성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함을 밝혔다.

셋째, 청소년기 애착관계의 변화가 일어나 또래애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학생의 경우 여전히 부모애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또래애착보다 크게 나타나 부모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시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보여 진다.

참 고 문 헌

- 경인지방통계청 (2014). 2014년 서울지역 청소년 통계자료. <http://www.kostat.go.kr>에서 2014년 10월 29일 인출.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53-67.
- 김미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김민경 (1994). 아동기 우울증의 평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1), 12-27.
- 신민섭, 김중술, 박광배 (1993).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분할점과 분류 오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71-81.
- 신재은 (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송희 (1999).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67-181.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 이정수 (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맹제, 성수정, 신서연, 김진선, 전승범, 김민정 등 (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영미 (2003).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불안: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숙 (2012). 성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정서 경험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1), 135-160.
- 최정임 (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 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683-697.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1-60). Greenwich, CT: JAI Press.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29-137.
- Chang, E. C., Watkins, A. F., & Banks, K. H. (2004). How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late to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Testing a stress-mediation model in black and whi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93-102.
- Chartier, G. M., & Lassen, M. K. (1994). Adolescent depression: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norms, suicidal ideation, and gender. *Adolescence, 29*(4), 859-864.
- Cole, D. A., Tram, J. M., Martin,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M. et al.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merg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arent and child repor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1), 156-165.
- Cummings, E. M., & Cicchetti, D. (1990).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M. T.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339-37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rry, J. F., & Craighead, E. (1990). Attributional style in clinically depressed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1), 109-115.
- Freud, A. (1958). *Adolescence. I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reud, S. (1923). The ego and the Id. SE-19.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Flett, G. L., & Dyck, D. G.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731-735.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9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04-314.
- Rice, K. G., Leever, B. A., Noggle, C. A., & Lapsley, D. K. (2007).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4*(2), 139-156.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 98-131.
- Rutter, M.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depression: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utter, C. E. Izard, & P. B. Reads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pp.3-32). New York: Guilford.
- Smucker, M. R., Craighead, W. E., Craighead, L. W., & Green, B. J. (1986). Normative and reliability data for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1), 25-39.

Steinberg, L. D. (1987). Family processes at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Family Therapy*, 43, 547-561.

Sund, A. M., & Wichstrom, L. (2002). Insecure attachment as a risk factor for future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12), 1478-1485.

Weissman, M. M., Bland, R. C., Canino, G. J., Faravelli, C., Greenwald, S., Hwu, H. G. et al. (1996). Cross-national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 293-299.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fectionism,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depression

Lee, Mihyun*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fectionism,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le adolescents' depression was affected (in the following order) b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elf-oriented perfectionism,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These variables helped account for 32.5% of male adolescents' depression. Second, female adolescents' depression was affected (in the following order) by peer attachment, parent attachmen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These variables helped account for 43% of female adolescents' depression.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levels of self-oriented perfectionism, parent and peer attachment were, the lower the levels of depression and the higher the levels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ere, the higher the levels of depression. In the case of fe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degree of peer and parent attachment, an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were, the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the higher the levels of depression.

Key Words : self-oriented & other-oriented &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parent & peer attachment, depression

투고일 : 2014. 7. 24, 심사일 : 2014. 11. 3, 심사완료일 : 2014. 11. 10

* Yonsei Univ. Graduate School of Child & Family Studies